東大新聞

發行人 金東都 編輯人 南宗熙 主筆 蔡洙赫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9
本社直通 ㉓8498

每週月曜日發行

# 學生會館5월着工

## 학교당국·총학생회간부 간담

### 教授陣·실험실強化 確約

### "全東國人, 建設대열에 참여"

올해들어 東國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학교당국은 校地확장, 校舍신장등 일련의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본교는 學年初에 각大學·處기관별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이미 예산을 확보, 5월前에 「람모스」건물의 학생회관을 건립하는등 세부계획이 총학생회간부들과 학교당국자들의 간담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지난 23일 오후 4시총장실에서는 金총장및 재단의 吳상무이사는 각學·處長및 부설기관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총학생회간부들과 학교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東國의 中興을 위한각종 건설사업계획을 재확인하는 한편 총학생회간부들의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학교당국은 이번이기의 등록금미납은 학교발전을 위한 短期계획과 硏究풍인상책정, 교직원 처우개선에따라 불가피한 것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그동안 全東國人의 숙당이던 학생회관건립이 차적인 계획으로 오는 5년 월8일 개교기념일 이전에 완工할 것을 언명했다.

이밖에도 유능한 교수·감사진보강을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학풍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효율화및 환경개선, 체육진흥관리문제, 커리큐럼재조정문제, 실험실 확충, 특강확대, 하생직업문제, 후생시설개선등 학교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 新入生 환영잔치

### 중강당서 長技대회등

東國의 새 얼굴로 학문탑의 대열에 나선 이번 신입생을 환영하는 잔치가 총학생회주최로 오는 4월初 중강당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베풀 계획이다.

이번 환영회는 예년과는 달리 대중가요 인기가수초청등 요란한 무드를 지양하고 보다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신입생長技대회「장·어롱」등 다양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총학생회에서는 오는 30일까지 長技대회에 출연할 신입생들의 신청을 받고있는데, 이는 각單大別및 남학생들이 골고루 출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 각建物 새로 단장

### 一次로 本館등 工事활발

신학기를 맞아 출두처에서는 校舍補修계획을 세우고, 1차로 지난 19일부터 각學·處長室을 비롯 도서관등 일부건물의 보수공사에 착수했다.

작학처장실에는 낡은 천장과 바닥을 수리하여 집무실의 환경정리에 만전을 꾀하는 한편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한 도서관의 방음시설및 선풍기가설을 서둘고 있다.

또한 C·D건물도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내부시설을 수리하는등 각 강의실에 대해서도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전전한 환경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배려한 공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계속 교내시설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있는데 공사중 당분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학생들은 양해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교내시설이나 캠퍼스 환경정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요망했다.

## 東國장학금

### 受惠者 선발시험

학생과에선 71학년도 東國장학금 수혜자 선발시험을 오는 4월9일 오후2시 중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獎學生 33명 더늘어

### 학생과 장학생 合格者 발표

1971학년도 각종 장학생 이미 정원 발표된 우수 장학생들이 지난12일 치른 선발시험결과에 따라선 16장학금등 각 장학생에 이어 정부대여, 장학생 30%, 자연계 70%의 비율로 배정 발표된 것이다.

이번 발표된 장학생 受惠者는 선발시험 성적순에 따라 인문계 30%, 자연계 70%의 비율로 배정 발표했는데, 이중에는 계속 수혜지도 포함하여 정부대여 장학금 22명, 5·16장학금 2명, 蘇美재단 4H장학금 1명등 모두 25명인데 이울러 中國人유학생으로 본교에 재학중인 5명에게도 수업료전액을 면제하도록했다.

특히 이번 발표된 정부대여장학금 지난해 19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모두 22명으로 늘어났는데, 새로운 수혜자로 선정된 16명은 졸업·기타 李愚允(農生3) 金然洙(敎1) 柳炳周(統2) 金春洙(林3) 이정주(物2) 韓泳均(商4) 朴永熹(法2) 張成一(食工3) 李東熙(食工3) 김용희(法3) 김옥희(法3) ▲동창회장학금=안민혁(建工2) 한호남(農生3) ▲3·1장학금=윤병무(農4) 李희구(敎3) 송재용(經·3) 외 1명〈이상 총79명〉

## 체육 特技生 79명

### 「東國體育」中興 기대

학생과는 71학년도 체육특기 장학생 79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봉공운동부 선수들로 등록금전액면제의 혜택을 받게된다.

금년도 체육특기장학생으로 확정된 장학생은 올해 스카웃된 신입선수까지도 포함, 모든 선수들에게 장학혜택을 주었는데 이와같이 종체육특기생에게 대대적으로 장학금을 주게된 것은 사기앙양을 촉구, 「東國 체육」에대한 거교적인 후원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각부별로 확정된 체육 특기장학생 수이다.

▲축구=김찬기(政外·4) 외 22명 ▲야구=김병규(食工·4) 외 17명 ▲농구=조정규(體敎·1) 외 9명 ▲레스링=김화경(貿·3) 외 9명 ▲빙상=전병기(體敎·2) 외 5명 ▲장거=양재규(食工·3) 외 5명 ▲선수부=신상규(應生·4) 외 2명 ▲수영=송재용(經·3) 외 1명〈이상 총79명〉

## 써클등록접수

### 31일까지學生課

학생과에선 20부터 31일까지 이미 등록된 학생「써클」의 재등록및 신규「써클」의 등록을 받고있다. 이기일내 교내외에서 활동중인 모든써클은 재등록을 받아야 각종 학생과로서도 제반써클활동에 협조할 수있다고 밝히면서 써클회장과 회원명단을 명기,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 金武經군 우승

### 레스링 選拔戰

본교 레스링部 金武經군(國文·1)은 지난12월 한성여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國文·1)은 지난12월 한성여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대학레스링선발전 (58kg급)에서 3전전승으로 우승, 오는 4월9일 서울 중강당에서 실시하는 제2회 전국대학레스링선발전에 출전, 본교를 대표하게 되었다.

## 教授陣·실험실強化 確約

### "全東國人, 建設대열에 참여"

지난 23일 오후 4시총장실에서는 金총장및 재단의 吳상무이사는 각學·處長및 부설기관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총학생회간부들과 학교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東國의 中興을 위한각종 건설사업계획을 재확인하는 한편 총학생회간부들의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학교당국은 이번이기의 등록금미납은 학교발전을 위한 短期계획과 硏究풍인상책정, 교직원 처우개선에따라 불가피한 것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그동안 全東國人의 숙당이던 학생회관건립이 차적인 계획으로 오는 5년 월8일 개교기념일 이전에 완工할 것을 언명했다.

이밖에도 유능한 교수·감사진보강을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학풍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효율화및 환경개선, 체육진흥관리문제, 커리큐럼재조정문제, 실험실 확충, 특강확대, 하생직업문제, 후생시설개선등 학교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 도서관補修

### 防音장치 시설

### 目錄室 확장등

도서관은 앞서 발표한바와 같이 23일부터 열람실의 내부수리및 선풍기 설치와 도서목록실 확장등 새 단장을 실시하여 오는1일 신간개관을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있다.

이번 시설확장공사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열위기를 마련해주고 도서目錄檢索과 신속한 대출업무수행을 위한 영람과 사무실및 목록실 이전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도서관은 「독서로 및 내자 내 學校 내 祖國」이라는 표어를 제정하여 널리 공고하고 독서권장에 적극적인 캠페인과 도서관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각가지 方案을 강구중이다.

## 보리수

### 正見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붙어있는 눈만을 가르킨 것이 아니고 밝고 똑똑하게 트인 것 즉 보는 관찰력과 숨기로운 見解를 가르킨 말일것이다. 이러한 눈은 비단 살림에 있어서만 보배가 아니다. 이러한 눈이야 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일 것이다.

위대한 인간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이루어 훌륭한 삶을 누리는 데에는 이 참다운 관찰력과 눈이 바른 見解를 가진 눈이 있어야 할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눈(目)으로 보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보는 것은 참으로 보고 참답게 본다는 것은 참으로 모두 이룰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보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무한한 행복과 영원한 삶의 길을 얻는 방법은 진실한 見解를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의 길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한한 행복, 영원한 젊음의 길은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윤각하게 버렸다. 무한한 행복의 길, 영원한 젊음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똑똑하게 볼수 있었다. 그가 그때 그것을 움바르게 보지 못하였던들 그는 하얗게 서었을 것이며, 부처님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김영태〉

## 今週一言

잠자는 무리가운데 깨어나 있는 賢者는 달리는 말과 같이 앞질러 나아간다.

〈法句經〉

## 29일 月曜講座

### 김용환씨 초빙

교양학부는 오는29일 정기 月曜講座에 貿易수석장관인 김용환씨를 초빙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2교시에 개최하고 교양학부에서 매주 월요일 교양강좌는 다른 교양학부학생은 물론 타학년학생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있어, 수재별로 권위있는 연사를 모실 계획이다.

## 學生會館5월着工

### 학교당국·총학생회간부 간담

### 教授陣·실험실強化 確約

### "全東國人, 建設대열에 참여"

지난 23일 오후 4시총장실에서는 金총장및 재단의 吳상무이사는 각學·處長및 부설기관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총학생회간부들과 학교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東國의 中興을 위한각종 건설사업계획을 재확인하는 한편 총학생회간부들의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학교당국은 이번이기의 등록금미납은 학교발전을 위한 短期계획과 硏究풍인상책정, 교직원 처우개선에따라 불가피한 것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그동안 全東國人의 숙당이던 학생회관건립이 차적인 계획으로 오는 5년 월8일 개교기념일 이전에 완工할 것을 언명했다.

이밖에도 유능한 교수·감사진보강을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학풍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효율화및 환경개선, 체육진흥관리문제, 커리큐럼재조정문제, 실험실 확충, 특강확대, 하생직업문제, 후생시설개선등 학교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 東國장학금

### 受惠者 선발시험

학생과에선 71학년도 東國장학금 수혜자 선발시험을 오는 4월9일 오후2시 중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獎學生 33명 더늘어

### 학생과 장학생 合格者 발표

1971학년도 각종 장학생 이미 정원 발표된 우수 장학생들이 지난12일 치른 선발시험결과에 따라선 16장학금등 각 장학생에 이어 정부대여, 장학생 30%, 자연계 70%의 비율로 배정 발표된 것이다.

이번 발표된 장학생 受惠者는 선발시험 성적순에 따라 인문계 30%, 자연계 70%의 비율로 배정 발표했는데, 이중에는 계속 수혜지도 포함하여 정부대여 장학금 22명, 5·16장학금 2명, 蘇美재단 4H장학금 1명등 모두 25명인데 이울러 中國人유학생으로 본교에 재학중인 5명에게도 수업료전액을 면제하도록했다.

특히 이번 발표된 정부대여장학금 지난해 19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모두 22명으로 늘어났는데, 새로운 수혜자로 선정된 16명은 졸업·기타 李愚允(農生3) 金然洙(敎1) 柳炳周(統2) 金春洙(林3) 이정주(物2) 韓泳均(商4) 朴永熹(法2) 張成一(食工3) 李東熙(食工3) 김용희(法3) 김옥희(法3) ▲동창회장학금=안민혁(建工2) 한호남(農生3) ▲3·1장학금=윤병무(農4) 李희구(敎3) 송재용(經·3) 외 1명〈이상 총79명〉

## 체육 特技生 79명

### 「東國體育」中興 기대

학생과는 71학년도 체육특기 장학생 79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봉공운동부 선수들로 등록금전액면제의 혜택을 받게된다.

금년도 체육특기장학생으로 확정된 장학생은 올해 스카웃된 신입선수까지도 포함, 모든 선수들에게 장학혜택을 주었는데 이와같이 종체육특기생에게 대대적으로 장학금을 주게된 것은 사기앙양을 촉구, 「東國 체육」에대한 거교적인 후원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각부별로 확정된 체육 특기장학생 수이다.

▲축구=김찬기(政外·4) 외 22명 ▲야구=김병규(食工·4) 외 17명 ▲농구=조정규(體敎·1) 외 9명 ▲레스링=김화경(貿·3) 외 9명 ▲빙상=전병기(體敎·2) 외 5명 ▲장거=양재규(食工·3) 외 5명 ▲선수부=신상규(應生·4) 외 2명 ▲수영=송재용(經·3) 외 1명〈이상 총79명〉

## 써클등록접수

### 31일까지學生課

학생과에선 20부터 31일까지 이미 등록된 학생「써클」의 재등록및 신규「써클」의 등록을 받고있다. 이기일내 교내외에서 활동중인 모든써클은 재등록을 받아야 각종 학생과로서도 제반써클활동에 협조할 수있다고 밝히면서 써클회장과 회원명단을 명기,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 金武經군 우승

### 레스링 選拔戰

본교 레스링部 金武經군(國文·1)은 지난12월 한성여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國文·1)은 지난12월 한성여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대학레스링선발전 (58kg급)에서 3전전승으로 우승, 오는 4월9일 서울 중강당에서 실시하는 제2회 전국대학레스링선발전에 출전, 본교를 대표하게 되었다.

## 社告

대학사회의 언론창달에 앞장서고 있는 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아카데믹저널」에 뜻이 있고 대학생활을 폭넓고 알차게 영위하고자하는 학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대학언론의 旗手될

### 男女修習記者募集

① 모집인원=약간명 (사진기자 포함)
② 응모자격=본교 1·2학년 남녀재학생
③ 제출서류=자필이력서 1통, 사진 1매
④ 제 출 처=본사 총무부
⑤ 접수일자=1971년 3월26일~4월3일
⑥ 시험일자=1971년 4월6일
⑦ 시험과목=국어, 일반상식, 작문, 면접
⑧ 합격자발표=1971년 4월8일

1971년 3월 일

東大新聞社

## 大學街 풍경

### 젊은 跳躍을 이 한 계단의 智慧로

大學街는 성실한 인식과 벅찬 發錄과 번거러운 수강신청을 모두 끝냈다.

그리곤 오른다. 한 계단씩 오른다. 마침내 우리는 날은다. 단원 문을 열고 정원 책을 펴고, 모두 그 속에 든다. 모두 모두 그 속에 있다.

우리는 F324에도, A108에도, C206에도 있다. 그속에 깃들어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

·各講義에 이끌리어간다. 드높게 완성되고 있다. 우리는 학문의 온화한 코끼리처럼 슬기롭고 용맹한 힘으로 正義의 구현에 앞장서 眞理탐구에 여념이 없다.

또한 우리는 思索한다. 光明과 智慧로 온누리를 밝히려은 東國의 전통을 이었다.

그리곤 오른다. 한 계단씩 오른다. 마침내 우리는 날은다. 단원 문을 열고 정원 책을 펴고, 모두 그 속에 든다. 모두 모두 그 속에 있다.

우리는 F324에도, A108에도, C206에도 있다. 그속에 깃들어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

·各講義에 이끌리어간다. 드높게 완성되고 있다. 우리는 학문의 온화한 코끼리처럼 슬기롭고 용맹한 힘으로 正義의 구현에 앞장서 眞理탐구에 여념이 없다.

또한 우리는 思索한다. 光明과 智慧로 온누리를 밝히려은 東國의 전통을 이었다.

그리곤 오른다. 한 계단씩 오른다. 마침내 우리는 날은다. 단원 문을 열고 정원 책을 펴고, 모두 그 속에 든다. 모두 모두 그 속에 있다.

우리는 F324에도, A108에도, C206에도 있다. 그속에 깃들어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

사진·李春 滿기자

## ROTC

### 명예위원회 구성

### 위원장에 김귀식君

◇김귀식君

학도호련의 一元化방침에 따라 72년도부터 그 막을 내리게 되는 ROTC 본교 1·2학년단에서는 최종 10기 명예위원회를 구성, 중대장 김귀식(化·4)군을 명예위원장으로 하여 6명의 위원을 임명하였다.

이제 4학년만으로 중대편성을 한 ROTC는 3구대 1개중대로 구분대 3구대 1개중대로 구성, 교육중인데 명예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예위원장=김귀식(化·4) ▲부위원장=김승우(經營·4) ▲위원=장인섭(應生·4) ▲이용호(都工·4) 나순철(警行·4) 이영균(自制神·4)

## 軍宗장교단來校

### 宗派間유대다져

軍宗장교단의 종파간협조 및 종교비교연구를 위해 軍牧박차현소령등 일행22명이 지난25일 본교를 방문, 소극장에서 「大學선원을 둘러한 교내각 부속기관을 비롯 보다 원활한 軍宗布敎를 위한 금번의 방문을맞아 金東華박사(大學院長)가 「佛敎의 國家觀」洪庭植교수(佛敎大)는 「佛敎의 特質」로 각각 소극장에서 강연을가졌는데 洪교수는 강연을통해 「불교의 특질은 諸法無我의 참신한 경지에서 獨存的인 존재를 부정하는데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들은 박홍관 불교문화연구소등을 돌아보후 佛敎大에서 마련한 오찬회에 참석, 佛大교수들과 환담을나누면서 특히 구종장교들의 종파간 상호협조를 당부했다.

## 明星女中高生 22명 渡日

### 「모리」병원부속간호학교서 修習

東國學院 산하明星女中高의 졸업생 신명순양등 22명(고졸11명·중졸11명)이 日本「모리」병원의 초청을받아 同병원부속간호학교에 입교, 4월초 渡日하게 된다.

이제회은 지난해 6월 日本佛敎界시찰 및 교육기관방문을 위한 「뉴욕」은 寓有引力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없어 聚說에의한 苦行主義도 모지 못하였던들 그는 하얗게 서었을 것이며, 부처님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 保健診療所

### 구내위생시설點檢

보건소는 최정기를 맞아 구내 각써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후생시설을 점검하여 교직원·학생들의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내 食堂·휴게실등을 전반적으로 위생점사를 실시하는 한편 선하도록 요구할방침이다.

앞으로 매월 「위생의날」을 맞아 학생들의 건강에 좀더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合唱단원모집도

한편 교육방송국에서는 전국하고 명랑한 캠퍼스 조성의 일환으로 밝은 노래를 보급하기 위한 합창단원을 대거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남녀 70명으로서 각 파트별로 보컬 네너15명 베이스트롬보 네노20명 알토20명이다. 원서 교부와 접수는 25일부터 29일까지인데 오는 30일 오전9시부터 거쳐 31일학력자를 발표 하게된다.

## 軍宗장교단來校

### 宗派間유대다져

軍宗장교단의 종파간협조 및 종교비교연구를 위해 軍牧박차현소령등 일행22명이 지난25일 본교를 방문, 소극장에서 「大學선원을 둘러한 교내각 부속기관을 비롯 보다 원활한 軍宗布敎를 위한 금번의 방문을맞아 金東華박사(大學院長)가 「佛敎의 國家觀」洪庭植교수(佛敎大)는 「佛敎의 特質」로 각각 소극장에서 강연을가졌는데 洪교수는 강연을통해 「불교의 특질은 諸法無我의 참신한 경지에서 獨存的인 존재를 부정하는데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들은 박홍관 불교문화연구소등을 돌아보후 佛敎大에서 마련한 오찬회에 참석, 佛大교수들과 환담을나누면서 특히 구종장교들의 종파간 상호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재단이사회는 지난 18일 「모리」병원측「아나세」 스닐등 4명의 일행을 초청, 이사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학생계속 교류 계획을 논의했다.

## 明星女中高生 22명 渡日

### 「모리」병원부속간호학교서 修習

東國學院 산하明星女中高의 졸업생 신명순양등 22명(고졸11명·중졸11명)이 日本「모리」병원의 초청을받아 同병원부속간호학교에 입교, 4월초 渡日하게 된다.

이제회은 지난해 6월 日本佛敎界시찰 및 교육기관방문을 위한 「뉴욕」은 寓有引力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없어 聚說에의한 苦行主義도 모지 못하였던들 그는 하얗게 서었을 것이며, 부처님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 도서관補修

### 防音장치 시설

### 目錄室 확장등

도서관은 앞서 발표한바와 같이 23일부터 열람실의 내부수리및 선풍기 설치와 도서목록실 확장등 새 단장을 실시하여 오는1일 신간개관을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있다.

이번 시설확장공사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열위기를 마련해주고 도서目錄檢索과 신속한 대출업무수행을 위한 영람과 사무실및 목록실 이전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도서관은 「독서로 및 내자 내 學校 내 祖國」이라는 표어를 제정하여 널리 공고하고 독서권장에 적극적인 캠페인과 도서관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각가지 方案을 강구중이다.

## 보리수

### 正見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붙어있는 눈만을 가르킨 것이 아니고 밝고 똑똑하게 트인 것 즉 보는 관찰력과 숨기로운 見解를 가르킨 말일것이다. 이러한 눈은 비단 살림에 있어서만 보배가 아니다. 이러한 눈이야 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일 것이다.

위대한 인간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이루어 훌륭한 삶을 누리는 데에는 이 참다운 관찰력과 눈이 바른 見解를 가진 눈이 있어야 할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눈(目)으로 보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보는 것은 참으로 보고 참답게 본다는 것은 참으로 모두 이룰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보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무한한 행복과 영원한 삶의 길을 얻는 방법은 진실한 見解를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의 길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한한 행복, 영원한 젊음의 길은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윤각하게 버렸다. 무한한 행복의 길, 영원한 젊음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똑똑하게 볼수 있었다. 그가 그때 그것을 움바르게 보지 못하였던들 그는 하얗게 서었을 것이며, 부처님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김영태〉

## 學生會館5월着工

### 학교당국·총학생회간부 간담

### 教授陣·실험실強化 確約

### "全東國人, 建設대열에 참여"

지난 23일 오후 4시총장실에서는 金총장및 재단의 吳상무이사는 각學·處長및 부설기관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총학생회간부들과 학교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東國의 中興을 위한각종 건설사업계획을 재확인하는 한편 총학생회간부들의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학교당국은 이번이기의 등록금미납은 학교발전을 위한 短期계획과 硏究풍인상책정, 교직원 처우개선에따라 불가피한 것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그동안 全東國人의 숙당이던 학생회관건립이 차적인 계획으로 오는 5년 월8일 개교기념일 이전에 완工할 것을 언명했다.

이밖에도 유능한 교수·감사진보강을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학풍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효율화및 환경개선, 체육진흥관리문제, 커리큐럼재조정문제, 실험실 확충, 특강확대, 하생직업문제, 후생시설개선등 학교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 東國장학금

### 受惠者 선발시험

학생과에선 71학년도 東國장학금 수혜자 선발시험을 오는 4월9일 오후2시 중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獎學生 33명 더늘어

### 학생과 장학생 合格者 발표

1971학년도 각종 장학생 이미 정원 발표된 우수 장학생들이 지난12일 치른 선발시험결과에 따라선 16장학금등 각 장학생에 이어 정부대여, 장학생 30%, 자연계 70%의 비율로 배정 발표된 것이다.

이번 발표된 장학생 受惠者는 선발시험 성적순에 따라 인문계 30%, 자연계 70%의 비율로 배정 발표했는데, 이중에는 계속 수혜지도 포함하여 정부대여 장학금 22명, 5·16장학금 2명, 蘇美재단 4H장학금 1명등 모두 25명인데 이울러 中國人유학생으로 본교에 재학중인 5명에게도 수업료전액을 면제하도록했다.

특히 이번 발표된 정부대여장학금 지난해 19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모두 22명으로 늘어났는데, 새로운 수혜자로 선정된 16명은 졸업·기타 李愚允(農生3) 金然洙(敎1) 柳炳周(統2) 金春洙(林3) 이정주(物2) 韓泳均(商4) 朴永熹(法2) 張成一(食工3) 李東熙(食工3) 김용희(法3) 김옥희(法3) ▲동창회장학금=안민혁(建工2) 한호남(農生3) ▲3·1장학금=윤병무(農4) 李희구(敎3) 송재용(經·3) 외 1명〈이상 총79명〉

## 체육 特技生 79명

### 「東國體育」中興 기대

학생과는 71학년도 체육특기 장학생 79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봉공운동부 선수들로 등록금전액면제의 혜택을 받게된다.

금년도 체육특기장학생으로 확정된 장학생은 올해 스카웃된 신입선수까지도 포함, 모든 선수들에게 장학혜택을 주었는데 이와같이 종체육특기생에게 대대적으로 장학금을 주게된 것은 사기앙양을 촉구, 「東國 체육」에대한 거교적인 후원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각부별로 확정된 체육 특기장학생 수이다.

▲축구=김찬기(政外·4) 외 22명 ▲야구=김병규(食工·4) 외 17명 ▲농구=조정규(體敎·1) 외 9명 ▲레스링=김화경(貿·3) 외 9명 ▲빙상=전병기(體敎·2) 외 5명 ▲장거=양재규(食工·3) 외 5명 ▲선수부=신상규(應生·4) 외 2명 ▲수영=송재용(經·3) 외 1명〈이상 총79명〉

## 써클등록접수

### 31일까지學生課

학생과에선 20부터 31일까지 이미 등록된 학생「써클」의 재등록및 신규「써클」의 등록을 받고있다. 이기일내 교내외에서 활동중인 모든써클은 재등록을 받아야 각종 학생과로서도 제반써클활동에 협조할 수있다고 밝히면서 써클회장과 회원명단을 명기,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 金武經군 우승

### 레스링 選拔戰

본교 레스링部 金武經군(國文·1)은 지난12월 한성여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國文·1)은 지난12월 한성여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대학레스링선발전 (58kg급)에서 3전전승으로 우승, 오는 4월9일 서울 중강당에서 실시하는 제2회 전국대학레스링선발전에 출전, 본교를 대표하게 되었다.

## 社告

대학사회의 언론창달에 앞장서고 있는 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아카데믹저널」에 뜻이 있고 대학생활을 폭넓고 알차게 영위하고자하는 학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대학언론의 旗手될

### 男女修習記者募集

① 모집인원=약간명 (사진기자 포함)
② 응모자격=본교 1·2학년 남녀재학생
③ 제출서류=자필이력서 1통, 사진 1매
④ 제 출 처=본사 총무부
⑤ 접수일자=1971년 3월26일~4월3일
⑥ 시험일자=1971년 4월6일
⑦ 시험과목=국어, 일반상식, 작문, 면접
⑧ 합격자발표=1971년 4월8일

1971년 3월 일

東大新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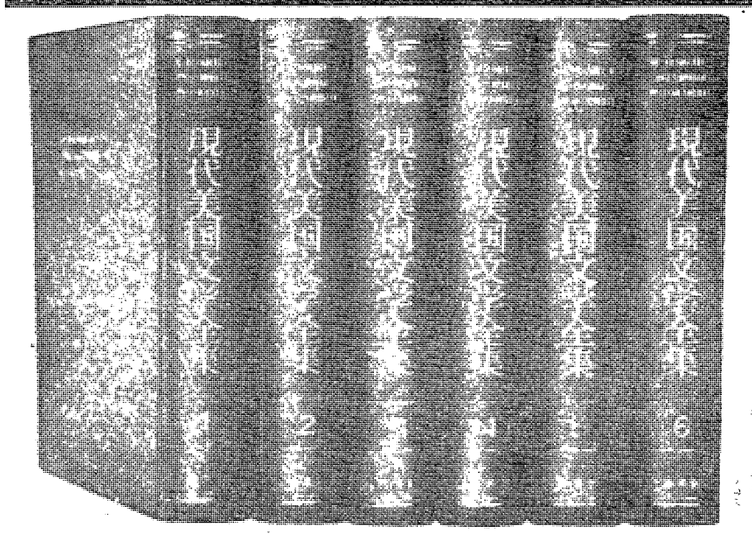
韓国 最初로 全 收録作品에 대하여 原作者로부터 正式 飜譯權을 取得한 出版良識의 標本!

# 現代美国文学全集 全六卷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AMERICAN LITERATURE

韓国아메리카学会 編 / 時事英語社 発行 / 編輯委員: 〈朱耀燮〉 〈梁炳鐸〉 〈康鳳植〉 〈郭光晋〉 〈金容權〉 〈金鍾云〉

헤밍웨이, 포오크너, 스타인벡등 노오벨文學賞
퓰리처文學賞, 오헨리文學賞 受賞作家 81명 全員登場



韓國最初의 三大特色

1 作品 하나, 写真 한장도 모두 原作者의 正式 収録許諾을 얻은 韓国最初의 出版物; 飜訳에도 韓国의 베스트 譯陣을 総動員, 한 篇도 日本語 重訳이 없다.

2 国家別 現代文学全集으로는 韓国最初; 美国文学의 総和를 얻을 수 있도록 作家와 作品을 厳選, 이 6巻을 讀破하면 大学 英文科 졸업생의 文学素養을 얻게된다.

3 4.6倍 大型 藏書版 文学書로는 韓国最初; 従来의 12巻 分量을 담은 이 한帙로 여러분의 書齊에 知性, 品位, 重量이 더해진다.

原色 現代美国美術作品 및 作家画報 収録
4.6倍大型藏書版 / 9포인드 3段組 / 特殊美色保眼紙 印刷
豪華洋裝 올박스包裝 / 各巻 530~590面
巻當 값 2,000원 / 全6巻 1帙 값 12,000원 / 4個月 月賦

時事英語社 配達注文 24-2974~5

地方注文 ▶ 釜山 ④1135-6 大邱 ② 0417 大田 ② 1538 ② 1550 光州 ② 0258 全州 2611 木浦 ② 0427 馬山 2925 清州 4096 春川 2650 原州 757

社說

# 大學發展을 위한 對話

한교당국자와 學生會幹部간에는 지난 23일 大學發展을 위한 對話를 나누었다. 현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학생회 장부들이 제기한 것이는 金總長을 비롯한 치장·재단當任 이사가 적극적인 반영을 確約 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대화에서는 대체로 ①學生會館의 조속한 착공과 실험실습시설의 확충 ②有能한 교수진의 초치 補强 ③단과대학 별특수성에 따른 전의 사항 ④도서관의 적절한 확충 등에서 경청되어졌다.

오늘날 선진국의 大學이나 우리나라와같이 개발도상 국가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문제는 대학의 大規模化와 大衆化에 따른 대학 機成員간의 對話 단절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상호간에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조의 길이 트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있다. 본교만 하더라도 수년전부터 연1~2회 정도의 간담회가 열리어 학교당국의 구상이 개진되고 학생사이에 토사리고 있는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청취하여왔다. 이번 학교당국자와 학생들과의 간담회는 결코 새삼스럽거나 異例的인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世代의 발전적인 발언이 대학당국자에게 그나름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의 發表이 예정대로 개교기념일이전에 될 것이라고 거듭 다져졌다.

여기서 우리는 大學의 學生會館은 世代의 野望을 기르고 思索과 낭만이 피어나는 요람이 되도록 設計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大學의 建築物은 단순한 學生들의 集散處가 아니다. 建築이 하나의 藝術로 이해되고, 建築上으로 표현된 思想과 美學的인 意味는 바로 그 建築物을 利用하는 사람의 정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까닭이다. 하나의 기둥과 窓과 色彩美, 그리고 그 校庭에 놓인 一木一石은 바로 학생들의 정신과 감정을 순화할수도 있고, 혹은 매마르고 거칠게 할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은 環境衛生론제와 함께 고려되어져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大學캠퍼스의 建物이 단조로운 시멘트와 철근만의 空間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方面의 전문가들 등이 永遠한 東大生의 보금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음으로 이번 學生들과의 對話에서 국내 大學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難題인 有能한 敎授의 초치강화 문제였다. 학교당국은 흔들한 교수의 초치를 위하여 腐心하고, 있을을 거듭 밝혀 왔고, 大學의 本質的인 發展은 연구하는 교수와 공부하는 學生 스승들에서 有能한 弟子가 나온다는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현대의 知識과 技術産業의 확장은 有能한 頭腦에 依存度가 더욱 높아 지고 있다. 어떤 미에서든지 大學은 敎授와 學生중심의 사회인 만큼, 大學의 權威는 그 學問的 업적과 교육성과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大學의 과거를 자랑할수 있다면 그것은 國內최고의 저명한 교수진과 교수들 찾아 그 교수진에서 成長한 人材들이다. 傳統이 단절된 사회에는 원체와 혼란이 온다. 傳統은 過去에서 現在로 연결하는 지속적인 自己刷新의 盛風과 함께 빛나는 학교당국이 有能한 敎授의 초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다정한 참으로 마음을 든든한 일이다.

어느 나라의 어느 大學에 있어서나 學生들의 自覺的인 학구노력이 정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서는 大學本然의 구실을 다할 수 없다. 우리 大學을 비롯한 모든 大學은 학생의 質的인 증가수준에 비해서 학생들의 質的인 향상이 그리 만족할만 하다고 할수 없다. 여기엔 入試 制度의 모순과 함께 지적되어야할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1차적으로 반성되어야 할 것은 학생 자신임은 명백하다. 배워서 지혜롭고 인간다워지고자 하는 것은 학생 자신임은 명백하다. 배워서 지혜롭고 인간다워지고자 하는 곳에서 학생의 존재가치는 인정되는 법론이다. 학생의 질적향상은 학생 자신의 책임인 동시에 기성세대의 책임이 동시적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大學의 발전이 재단과 학교당국, 교직원과 학생들 그 어느 한 쪽만의 의욕이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겠다. 모든 大學구성원의 상호 신뢰와 존중, 人和와 團結 그리고 각기 自己所任을 다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 긴요하다. 기 때문이다. 大學발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은 무엇을 어떻게할 것인가를 반성해야 하겠다.

# 現代會計學의 硏究方向

우선 會計學을 연구하려 함에 있어서는 그 연구목적과 방법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말하자면, 기업의 合理的운영을 꾀함에 있어, 기업경영의 실천면에 적용될 기업會計를 올바른 인식아래서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학의 체계구성에 있어, 기업회계 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그나라의 산업구조 및 산업의 고도발전 과정에따라 달라지는 것이라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하려는 회계학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기업회계제도, 즉 會計法規(商法·稅法·財務諸表規則·기타法規)및 商慣習등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기업회계에 적용될 회계이론의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여기서 현대 회계학의 연구과제로서 다음 몇가지 점을 그연구목적및 방법으로 삼으려한다.

李龍澤 <經商大 學長>

# 회계제도 商慣習 이거

## 예산통제로 經營合理化를

(一) 3. 기업은 정기적으로 회계결산을 행한 결과인 財務諸表를 공개하여 이해利害관계자들의 보고요구에 맡겨케 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회계는 진실한 보고를 요구하는 공개성원칙에 의거하여 기업이 작성한 財務諸表를 대내외적으로 공개명시함으로써 利害관계자들에게 재정상태와 경영성과에 의한 기업자본과 기업재정의 옳바른 판단을 갖게한다.

여기서공개성원칙이란가 대하여 진실한 보고를 요하게하여 기업가가 어떤 목적에서 작성하는 財務諸表가 진실성을 결여하고, 정책적으로 가장하여 기업재정을 은폐하고, 혹은 사실보다 유리하게 粉飾하려는 악습폐단이 생겨서, 利害관계자(수수, 채권자, 투자가)에게 害를 줄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4. 기업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업의 실태를 경영 분석하고, 예산통제를 하며 경영결과의 평가를 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을 꾀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영합리화는 경영분석·예산통제등에 대한 기업의 취지는, 發生主義에 의거하는 것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된것만을 計上하고, 未實現수익은 원칙적으로 計上하지 아니한다는것이다.

그러나 未實現수익을 대차대조표의 資産之部에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기의 손익계산에 計上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용에 대하여는 그 발생된것을 計上하게 되므로 이는 당기의 지급비용은 물론, 미지급비용도 計上하게된는것이다.

2. 稅法上(제23조) 收益실현시기.

세법상에서도 당기 손익계산은 발생주의에 의거하도록 되어있으나 다만 未受수익의 計上시기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가 있는것이다.

ㄱ.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實現수익은 원칙적으로 당기의 손익계산등에 計上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ㄴ.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實現수익은 원칙적으로 당기의 손익계산에 計上하는 것이다.

ㄷ.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ㄹ.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ㅁ.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ㅂ.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ㅅ.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ㅇ.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ㅈ.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ㅊ.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ㅋ.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ㅌ.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ㅍ.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ㅎ.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ㄱ.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다.

ㄴ. 賃貸王義—수익의발생은 실현기준 기준으로 한다. 未受수익은 이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計上하지 아니한

# 厚生施設이 대로 좋은가

## 제구실 다못하는 써비스 業體들

대한이 본래의 제기능을 다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겠지만 자칫 학생들의 厚生및 환경위생은 외면당하기 일쑤이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우들을 보내게되는 우리와같은 대학의 실정에서는 더욱이 큰 제가 심각해진다. 한잔의 음료수부터 강의에 지친 머리를 잠깐 쉬는 휴식처까지 과연 만족할 만한 환경위생이되고 있는것일까. 그나마 「캠퍼스」에 설치된 이런저런 후생시설은 대충 골어봐서 식당 휴게실 이발소 그밖에 각종 구내매점들이다. 제대로 「학생회관」이 마련돼있지 못한 현실이고보면 시설이나마 대신하여 학생들의 위생 건강을 심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비위생적인 강의실 공해에 젖어드는 「캠퍼스」, 이런 현실적인 여건아래 학생들은 각박한 정신적인 불안마저 갖고있다. 먼저 가득한 강의실이나 휴지 오물이 널려진 「캠퍼스」에서 잠시 멀리고 휴식을 취할 여지는 좀체 찾아볼 수없는 지경이다.

학교당국이 배려한나 식당이나 휴게실은 아무에게도 제 구실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 □厚生施設실태□

食堂=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드나들게되는 곳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시락을 먹거나 買食으로 요기하는 이용자들은 오전 이 너무도 어둠침침한데 불쾌감을 가진다. 採光이 좋지않아 가장 위생적이어야할 식당분위기가 어둡고 습기찬 곳이 되어버렸다. 『애당초 건물을 설계할때 아예 큼직한 구내 식당으로마련한 것이라지만 이런데서 좋더 신중한배려가 없었던 것같다. 물론 他대학에 비해 그나마 좀더 위생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전의 얘기다. 학교당국은 이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아 불평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이론을 위주로한 것 같아 기대가 어긋난것 같읍니다. 동양에서 유일한 학과니까 교수진 이 강좌도 필요한것 같아요.

□대학교육

▲사회=대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어떻읍니까?

▲崔=中高校는 한정된 수입하면 교수님은 강의시간이 적어 학생들의 학문연구 및 독서 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李=강의가 끝나고 교수님께서는 인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답례의 자세를 갖추지 않아 퍽 신경이 쓰이더군요. 또 교수님하면 상당한 권위감은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교수님은 강의시간이 해주는것 같읍니다. 이럴 때는 학생들이 답례의 자세를 갖추어서 『권장은 없고 지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런 모습이 권위있게 하고 있는 적도 있었어요.

▲朴=강의만해도 전부 관서가 아니고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적으려 하니 당황하게 되더군요.

▲사회=여러분이 택하신 전공과목에 대한 적성여부는 어떻읍니까. 생각했던 만큼 잘 맞는지요.

▲崔=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인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대학에 대한 환상을 갖고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들린 東大의 구성원이 된 지금 역시 여기에 들어온데 대해 긍지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제가 불교미술과 제1회 학생이니까 불교미술에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朴=東大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었읍니다. 평소 불교에 흥미를 가진것이 계기가 되어 입학했는데 「월요강좌」 또는 「철학법회」를 들고나니 평화롭고 즐거운는 인상을 느끼게 되는군요.

▲咸=선입감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읍니다. 불교 지금은 다르지만요. 불교상이 있는듯 믿기 때문에는 무엇인가 싶으한 사매력을 느끼고있읍니다. 전통이 있는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東大食工科를 지망했읍니다. 또 제전 聖像의 마력(?)을 아무래도 뿌리칠수없어 입학했읍니다.

▲文=저는 신설된 불교미술과의 미래에 기대를 갖고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들린 東大의 구성원이 된 지금 역시 여기에 들어온데 대해 긍지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제가 불교미술과 제1회 학생이니까 불교미술에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朴=東大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었읍니다. 평소 불교에 흥미를 가진것이 계기가 되어 입학했는데 「월요강좌」 또는 「철학법회」를 들고나니 평화롭고 즐거운는 인상을 느끼게 되는군요.

▲咸=선입감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읍니다. 불교 지금은 다르지만요. 불교상이 있는듯 믿기 때문에는 무엇인가 싶으한 사매력을 느끼고있읍니다. 전통이 있는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東大食工科를 지망했읍니다. 또 제전 聖像의 마력(?)을 아무래도 뿌리칠수없어 입학했읍니다. 특히 황건룡, 성상의 이미지가 새로웠고 동양유일의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한 감격은 그야말로 가슴벅찬 뿐입니다.

▲文=저는 신설된 불교미술과의 미래에 기대를 갖고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들린 東大의 구성원이 된 지금 역시 여기에 들어온데 대해 긍지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제가 불교미술과 제1회 학생이니까 불교미술에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朴=강의만해도 전부 관서가 아니고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적으려 하니 당황하게 되더군요.

▲사회=여러분이 택하신 전공과목에 대한 적성여부는 어떻읍니까. 생각했던 만큼 잘 맞는지요.

▲崔=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인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대학에 대한 환상을 갖고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들린 東大의 구성원이 된 지금 역시 여기에 들어온데 대해 긍지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제가 불교미술과 제1회 학생이니까 불교미술에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막상 입학하고 보니까 큰집에 온 것분입니다. 특히 황건룡, 성상의 이미지가 새로웠고 동양유일의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한 감격은 그야말로 가슴벅찬 뿐입니다.

▲文=저는 신설된 불교미술과의 미래에 기대를 갖고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들린 東大의 구성원이 된 지금 역시 여기에 들어온데 대해 긍지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제가 불교미술과 제1회 학생이니까 불교미술에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朴=東大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었읍니다. 평소 불교에 흥미를 가진것이 계기가 되어 입학했는데 「월요강좌」 또는 「철학법회」를 들고나니 평화롭고 즐거운는 인상을 느끼게 되는군요.

▲咸=선입감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읍니다. 불교 지금은 다르지만요. 불교상이 있는듯 믿기 때문에는 무엇인가 싶으한 사매력을 느끼고있읍니다. 전통이 있는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東大食工科를 지망했읍니다. 또 제전 聖像의 마력(?)을 아무래도 뿌리칠수없어 입학했읍니다.

▲朴=東大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었읍니다. 평소 불교에 흥미를 가진것이 계기가 되어 입학했는데 「월요강좌」 또는 「철학법회」를 들고나니 평화롭고 즐거운는 인상을 느끼게 되는군요.

▲咸=선입감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읍니다. 불교 지금은 다르지만요. 불교상이 있는듯 믿기 때문에는 무엇인가 싶으한 사매력을 느끼고있읍니다. 전통이 있는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東大食工科를 지망했읍니다. 또 제전 聖像의 마력(?)을 아무래도 뿌리칠수없어 입학했읍니다.

▲사회=대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어떻읍니까?

▲崔=中高校는 한정된 수입하면 교수님은 강의시간이 적어 학생들의 학문연구 및 독서 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李=강의가 끝나고 교수님께서는 인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답례의 자세를 갖추지 않아 퍽 신경이 쓰이더군요. 또 교수님하면 상당한 권위감은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교수님은 강의시간이 해주는것 같읍니다. 이럴 때는 학생들이 답례의 자세를 갖추어서 『권장은 없고 지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런 모습이 권위있게 하고 있는 적도 있었어요.

▲朴=강의만해도 전부 관서가 아니고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적으려 하니 당황하게 되더군요.

▲사회=여러분이 택하신 전공과목에 대한 적성여부는 어떻읍니까. 생각했던 만큼 잘 맞는지요.

▲崔=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인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대학에 대한 환상을 갖고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들린 東大의 구성원이 된 지금 역시 여기에 들어온데 대해 긍지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제가 불교미술과 제1회 학생이니까 불교미술에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막상 입학하고 보니까 큰집에 온 것분입니다. 특히 황건룡, 성상의 이미지가 새로웠고 동양유일의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한 감격은 그야말로 가슴벅찬 뿐입니다.

▲文=저는 신설된 불교미술과의 미래에 기대를 갖고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들린 東大의 구성원이 된 지금 역시 여기에 들어온데 대해 긍지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제가 불교미술과 제1회 학생이니까 불교미술에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朴=東大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었읍니다. 평소 불교에 흥미를 가진것이 계기가 되어 입학했는데 「월요강좌」 또는 「철학법회」를 들고나니 평화롭고 즐거운는 인상을 느끼게 되는군요.

▲咸=선입감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읍니다. 불교 지금은 다르지만요. 불교상이 있는듯 믿기 때문에는 무엇인가 싶으한 사매력을 느끼고있읍니다. 전통이 있는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東大食工科를 지망했읍니다. 또 제전 聖像의 마력(?)을 아무래도 뿌리칠수없어 입학했읍니다.

# 부른 期待와 失望…

## 東國을 말하는 新入生 좌담회

□…… 大學入門 15일후, 새로운 대학생활을 경험하는 프레쉬맨들이 모여 그동안 느끼고 생각한 것을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注> ……□

(웃음웃음) 그럼 대학에 와서 비로소 성격나는 「강의」 「강의실」 「수강카드」 「교수」 등 새단어들에 대해 여러분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崔=선생님보다는 교수님이 훨씬차원이 높은 인선생님이 안계시니까 여러가지의 교양학부에 가서 물게되는데 자세한 사정을 안 해주는것 같읍니다. 이럴 때는 강은과의 선배라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이 들더군요.

▲李=강의가 끝나고 교수님께서는 인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답례의 자세를 갖추지 않아 퍽 신경이 쓰이더군요. 또 교수님하면 상당한 권위감은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교수님은 강의시간이 해주는것 같읍니다. 이럴 때는 학생들이 답례의 자세를 갖추어서 『권장은 없고 지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런 모습이 권위있게 하고 있는 적도 있었어요.

▲朴=강의만해도 전부 관서가 아니고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적으려 하니 당황하게 되더군요.

▲사회=여러분이 택하신 전공과목에 대한 적성여부는 어떻읍니까. 생각했던 만큼 잘 맞는지요.

▲崔=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인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대학에 대한 환상을 갖고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들린 東大의 구성원이 된 지금 역시 여기에 들어온데 대해 긍지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제가 불교미술과 제1회 학생이니까 불교미술에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막상 입학하고 보니까 큰집에 온 것분입니다. 특히 황건룡, 성상의 이미지가 새로웠고 동양유일의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한 감격은 그야말로 가슴벅찬 뿐입니다.

▲文=저는 신설된 불교미술과의 미래에 기대를 갖고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들린 東大의 구성원이 된 지금 역시 여기에 들어온데 대해 긍지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제가 불교미술과 제1회 학생이니까 불교미술에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朴=東大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었읍니다. 평소 불교에 흥미를 가진것이 계기가 되어 입학했는데 「월요강좌」 또는 「철학법회」를 들고나니 평화롭고 즐거운는 인상을 느끼게 되는군요.

▲咸=선입감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읍니다. 불교 지금은 다르지만요. 불교상이 있는듯 믿기 때문에는 무엇인가 싶으한 사매력을 느끼고있읍니다. 전통이 있는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東大食工科를 지망했읍니다. 또 제전 聖像의 마력(?)을 아무래도 뿌리칠수없어 입학했읍니다.

▲사회=대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어떻읍니까?

▲崔=中高校는 한정된 수입하면 교수님은 강의시간이 적어 학생들의 학문연구 및 독서 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 女子·女大生

□□□